

2003

vol.1

정의의 종

S N U L a w M a g a z i n 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 o n t e n t s

발 간 사	02 ■ 「정의의 종」 창간을 맞이하여...(안경환 학장)
특 집 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간다.	04 ■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출 06 ■ 국제법 모의재판팀, 제섭(Jessup)국제법모의재판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올려 08 ■ 동아시아 법학도의 연대, ALSA Korea 10 ■ 서울법대, 외국인 초빙교수 금년부터 선발예정
특 집 ② 공익과 인권을 향하여	12 ■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16 ■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다 : 정인섭 교수와의 인터뷰
동문인터뷰	19 ■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만나다
	26 추모 ■ 故 유기천 교수 추모식 및 출판 기념회 28 초점 ■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 백충현 서울대 대학원장에게 듣는다 30 법대생 커뮤니티 ■ 서울법대 장애의 벽 걷어낸다 : 손위용, 김용광 군의 입학 ■ 장애인인권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수 - 학생 간담회 35 동정 ■ 「자랑스런 서울 法大人」 시상식 36 법률에세이 ■ 엘리트,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호문혁 교수) ■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억의 역사(한인섭 교수) ■ '八姦'을 경계하십시오(조국 교수) 41 책풀이 한마당 ■ 저자 인터뷰 : 최종고 교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2002 우수학술도서' 선정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한국근대법사고」 ■ 2002년~2003년 상반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의 저작활동 48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 ■ KAL기 참사, 故 김도연(金度演)군 유족 ■ 서울대에 거액 장학금 출연 ■ 강의실이 확 바뀌었어요 - 어느 독지가의 서울법대 사랑 이야기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SNU Law Magazine 제 1호 발행인 : 안 경 환 편집 : 한인섭, 조국, 김영진 발행일 : 2003년 6월 발행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74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02-880-7530 Fax.02-889-7196 http://law.snu.ac.kr

창립 이래 우리 서울법대는 나라의 근대화와 법치사회의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천하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동문 인재들이 법조계는 물론 나라 전체의 공, 사의 영역에서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법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유린한 극동의 작은 나라, 연간 국민소득 몇 십 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의 경제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듯이, 우리 대학도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절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 제 1의 대학이라는 자부심마저 열악한 교육여건과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영화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질책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수준의 법과대학,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법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법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알림으로써 동창, 학부모, 후원자, 그리고 서울법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 정보의 가교를 놓기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법대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내딛는 첫걸음이며 '천하제일'이란 이름에서 벗어나 세계의 명문 법과대학들에 견주어 전혀 뒤쳐지지 않는 서울법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초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준 원고 작성자 및 편집위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의의 종」 창간을 맞이하여...



「정의의 종」 창간호는 서울 법대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게 내딛는 첫걸음이며 '천하제일'이란 이름에서 벗어나 세계의 명문 법과대학들에 견주어 전혀 뒤쳐지지 않는 서울법대로 도약할 수 있게끔 초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3.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李 泰煥

송상현 교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 선출

서울대 법대 송상현(宋相現·61)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금년 3월 11일부로 공식 출범했다.

송상현 교수는 지난 2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18명의 초대 재판관을 선출하는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중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1차 투표에는 43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후보로 나섰으며 투표결과 송상현 교수를 포함하여, 아일랜드, 말리, 브라질, 가나,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후보 등 7명이 선출되었다. 재판관 선거는 이후 무려 33차례의 투표를 거쳐서야 18명의 재판관을 모두 뽑을 수 있었다. 여성 6명, 아시아-동유럽 각 2명, 서유럽-아프리카-중남미 각 3명, 형사법 분야 9명, 국제법 분야 5명 등 성별·지역별·전공별 “최소기준”이 채워질 때까지 끝없이 재투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선출 과정에서 송상현 교수가 1차에 당당히 선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

지금까지 일부 국제 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뽑힌 사례가 두세 차례 있었지만, ICC 같은 비중있는 국제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있는 송상현 교수(2003년 2월 13일-연합뉴스 제공)



해 송상현 교수는 “총체적으로 국력 신장의 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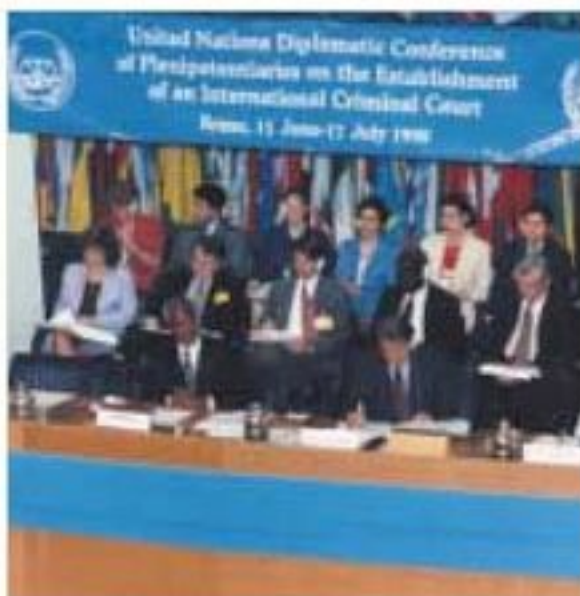
한국 법조계에서는 송상현 교수의 ICC 재판관 선출에 대해 “우리나라 법학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사건”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안경환(安京煥) 서울법대 학장은 “지금까지 일부 국제 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뽑힌 사례가 두세 차례 있었지만, ICC 같은 비중있는 국제재판소에서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총장, 이세중(李世中)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 등 각계 저명인사 100여명은 작년 12월부터 송 교수의 후원인으로 나서 국제적 인맥을 통해 송 교수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송상현 교수는 상법과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툼라인대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으며,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상현 교수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였으며, 197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30여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1년에 2~3개월씩 한국법을 강의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송상현 교수는 ICC 재판관 선출 후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법을 전공한 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인 ICC 재판관에 선출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그보다 우리 외교와 법조 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이 자국민의 ICC 피소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양자 협정을 추진 중인데 대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주둔군과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있어 ICC의 관할권에 복종할 경우 저촉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 면소권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양자 협정은 평등한 법 적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상현 교수는 “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류 범죄 등 ICC가 취급하는 국제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앞으로 판결을 할 때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더 강하게 옹호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어디



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이번 일이 돌파구가 되어서 앞으로 후배 학자들도 국제기구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진구 기자

서울법대 교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상현 교수



국제법 모의재판팀, 제섭(Jessup)국제법모의 재판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올려

서울법대 국제법모의재판팀(김태운[현재 법3], 이국희[현재 법2], 이혜민[현재 법2], 임유현[현재 법2])이 2003년 3월 30일에서 4월 5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섭(Jessup)국제법모의재판 세계경시대회에서 90여개국 지역 우승대표팀들과 경쟁하여 20위를 달성하였다. 제섭(Jessup) 경시대회는 1960년에 미국국제법학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가히 법학에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리울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이다. 90여개국 중 20위가 잘한 것인가 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회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 참가학생들이 참가 당시에 1학년 혹은 2학년이었다는 점, 지난 9년간의 참가 전적 가운데 단체 성적으로는 가장 우수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서는 안 될 것이다.

각국에서 온 제섭(Jessup)팀들간의 순위가 매겨지는 경위를 살펴보면 4승팀, 3승팀, 2승팀 순으로 나열한 후 총점에 따라 다시 그 안에서 순위를 매긴다. 서울대 제섭팀은 3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두었는데, 1패를 하였을 때 대적한 팀이 베네주엘라팀이었다. 베네주엘라는 전통적으로 제섭모의재판대회에서 남미 국가들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국가였

서울대학 국제법모의재판팀이 법학에서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리울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섭(Jessup)국제법모의재판 세계경시대회에서 20위를 달성하였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을 견학중인 각국의 제섭 참가학생들



다. 참가학생들(이국희, 이혜민, 임유현)은 인터뷰 중간에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판사들이 산정한 총점은 4승을 했던 두 팀의 점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2003년 제섭 참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착해서 보니 실력차이가 정말 간발의 차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나고 이전의 서울대 제섭을 했던 선배들이 한 말도 실감이 나고요. 이번 4월 말에 제섭에 참가할 후배들을 선발하고 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최고의 결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 줄 겁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후배들을 괴롭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03년 제섭 참가학생인 이혜민은 “제섭에 강한 다른 학교를 보면 제섭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제섭팀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코치가 있어요. 물론 이전의 서울대 제섭팀의 선배들이 워낙 잘 해주기는 하지만요, 제도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배들이 도와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배들이 제섭팀 변론서 양식을 가르쳐 주거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과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고

특집 2 | 공익과 인권을 향하여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인권법」 강좌가 개설되다 :

정인섭 교수와의 인터뷰



공익과 인권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을 위한 싱크탱크의 발족 :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공익과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 개요와 그 활동에 대한 소개이다.



1. 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 설립

법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공익과 인권의 신장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법과 대학에서 그에 대하여 연구, 실천하는 학풍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교육연구단(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에 법과대학에 공익인권법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이하 공익인권법센터로 약칭한다).

공익인권법센터는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이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공익 및 인권과 관련된 기존법제와 관행의 재검토, 새로운 법제의 강구,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족 이후 공익인권법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2003년 5월 현재까지 여섯 번의 학술회의를 열었음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문제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으고 자료를 보충하여 네 권의 <공익과 인권> 단행본을 출간하였기 때문이다. 단행본의 출간을 통해 소중한 논의의 결과가 1회성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공익과 인권에 대한 현재의 척박한 연구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I

- 학술회의 및 단행본 출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학술회의와 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1년 12월 10일,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다.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공론화와 법적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지금도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다. 학술회의에서 조국 교수(현 서울대, 당시 동국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발표에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그것이 병역기피나 종교적 이단으로 처리될 수 없는 우리 법의 핵심적인 관

제로 2002년 첫 학술회의를 열었다. 2001년 11월 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하나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술회의에서 정인섭 교수는 “재외동포법의 근본적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재외동포법이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좀더 장기적 안목의 교포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새로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외동포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 관하여는 외국인 처우 개선과 연계하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종훈 연구관(국회)은 “재외동포법 개



심사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복희 교수(현 카톨릭대, 당시 BK21 계약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발표에서 각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김병렬 교수(국방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에서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적 문제점과 대체복무 도입의 현실적 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한인섭 교수와 김재형 교수의 헌법적·형사법적 검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증언,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2002년 2월에 〈공익과 인권〉 시리즈의 첫 단행본으로 사람생각 출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2002년 4월 12일, 〈재외동포법의 재검토〉를 주

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발표에서, 해방 이전 해외이주민 곧 재중동포 등에 대한 우대 당위론은 과거에 일제가 행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혈통주의적 표현을 피하면서 모든 동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야 하며, 중국정부와의 마찰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진영 교수(경희대)는 “재중동포 관련 쟁점에 관한 대 중국 적극적 외교방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보다는 한-중간 조선족 문제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2002년 6월 발간된 〈재외동포법〉 단행본에는 발표 및 토론 이외에 재외동포법의 제정, 개정논의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실었다.

한편 공익인권법센터의 관심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접 당사자로 겪는 교육문제에도 미친다. 고등학교 평준

자리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인시위, 사이버시위, 외국공관 내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등에 관하여 김도형 변호사, 김승환 교수(전북대), 정인섭 교수, 정찬모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 단행본은 사립생각 출판사에서 5월 말 출간 되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출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공익인권법센터는 〈성매매 피해여성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2003년 5월 23일, 2003년 두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3.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II

- 심포지움, 집담회 등을 중심으로

공익인권법센터가 지금까지 개최하였던 학술회의와 단행본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일공동연구회

한일공동연구회는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안전보장정세의 변화와 한일의 안보·치안법제의 구조'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에서 유사법제(有事法制)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한일학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는 큰 의미가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본 연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제 및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학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 제 1회 한일공동연구회 : 〈군사주의와 인권〉 심포지엄, 2002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 2회 한일공동연구회 : 〈유사법제와 국가긴급권에 관한 신고찰〉, 2003년 2월 17일, 일본 교토 立命館대학 수학관 제 1연구실

(2) 집담회 개최

2002년에 4회, 2003년 5월 현재 3회의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집담회의 성과를 학술회의의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인권연구의 연속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2002년

- 제 1회(2002/3/29): 조이여울(여성신문 기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실태"
- 제 2회(2002/5/10): 이배근(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그 제도적 대응 모색"
- 제 3회(2002/10/28): 김현선(새움터 대표): "성매매여성들의 실태 및 법률적 문제"
- 제 4회(2002/11/25): 김강자 총경(치안본부 여성청소년과장): "성매매의 현황과 대책 모색"

2003년

- 제 1회(2003/1/9): 정강자(국가인권위원), 박원순(변호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대학내 인권법연구소의 역할 I"
- 제 2회(2003/2/10): 차병직(변호사), 조효재(성공회대), 박석운(노동인권센터소장): "대학내 인권법연구소의 역할 II"
- 제 3회(2003/5/16): 최대권(서울대 명예교수), 박명규 교수(서울대), 이철우 교수(성균관대):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

그 외에 제 2회 세계난민의 날 기념 워크숍(2002년 6월 19일: "한국의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외국학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Foreign Authority Forum 등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이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최준혁 기자

기자: 사실 인권법 강의개설 당시, 교수님이 국제법 강의를 해오시던 분이어서 인권법 강의 역시 국제적 차원에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 저도 그 점을 주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국제적인 부분은 한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 정도만 언급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죠. 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의 법적 관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차원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보호의 실패인 것이죠. 국내의 인권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연히 국내의 관점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시각을 항상 같이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봐요.

기자: 마지막으로 현재 인권법 강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사회 이슈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국내법적인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매시간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여러 매스컴에 인권문제와 관련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로 보기 힘들어요. 강의는 사회 운동과는 달라서 5분, 10분 흥분한 상태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강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박석운 노동인권연구소 소장, 강병득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차병

직 변호사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수업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의 주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 NGO 활동의 문제, 의문사, 국제형사재판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서 현실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인권관련 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예정...

참, 이 강좌는 다른 과목보다 숙제가 좀 많습니다. 레포트는 한 3개 정도 부과했는데, 레포트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번 본인이 활동을 해보고 그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친구가 장애인인데 수업들으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 직접 활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학장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고, 그게 잘 안되면 총장한테 탄원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직접 해보고 그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현직 판, 검사들조차 대부분 인권법 교육을 따로 받지 못했고, 법원이 지난 10년간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법 강좌개설은 서울대 법대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고시생으로 가득차 있는 법대에서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박준엽 기자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만나다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방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듯 중차대한 직무 수행을 현재 서울법대 출신의 한 인물이 맡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법과대학의 75학번이자 여성으로서 최초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금실 장관을 만나 근황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인터뷰에는 조국 교수(형사법 담당)와 학생 김영진(박사과정), 이지연(00학번), 문진구(01학번), 박준엽(02학번)군이 참석하였고 법무부의 이춘성 공보관이 배석하였다.



79년 2월 서울대 교정에서 졸업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강금실 장관

조국 교수(이하 조): 오늘 저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정의의 종 창간호에 게재될 동문 인터뷰의 일환으로 장관님을 방문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학교의 동문 후배들로 선배 동문의 이력과 근황을 각계에 소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선뜻 시간을 내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후배들에게 편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진(이하 김): 장관님은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십니다. 금녀(禁女)라고도 불릴 정도로 남성적 분위기가 강한 법무부에서 최초의 수장을 맡으셨고 따라서 장관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보수적인 우리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도 작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으로서 얼마나 현저한 성과를 산출할 것인지가 여성계 전체의 위상과도 관련있다는 일부의 이야기들은 일개인에게 전체 공동체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장관(이하 강):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일 역시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대단한 식견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때로는 역부족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하는 사람이 일 외에 다른 곳에 신경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밖에서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흐트러질 수 있

고, 때론 매우 정치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정부 핵심부처의 장관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시대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고, 저는 단지 그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조: 시대적 변화는 결국은 개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금실이라는 개인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강 장관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이른바 '강금실 경호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계속 진취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대가 커서 부담감도 많으시겠습니까.

강: 법무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부담이죠. 부담을 느낄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감을 잊고 일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법무부 장관 취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부담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장관이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일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무부 성격 자체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도 동시에 요구되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권위화되고 시대발전엔 장애가 될 것이니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안정적이

면서도, 계속 진취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엽(이하 박): 장관님이 대학을 다니던 때가 한국 사회의 굴곡이 심했던 시기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강: 그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책 중에 프레리(Paulo Freire)의 『교육과 의식화』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의식화'였어요. 대학에 와서 사회에 대해 조금씩 눈 떠가는 과정을 '의식화'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의식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탈춤반 활동을 했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춤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춤추는 게 좋아서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탈춤반에 들어가자마자 데모가 크게 나서, 동아리 선배들이 다 잡혀 들어갔고, 그 때 고척동 구치소에 접견도 많이 다녔었어요. 그 때만 해도 특별한 사회 문제의식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계속 겪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의 사회의식이 생겼고, 3, 4학년 쯤에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대해 눈뜬 것 같아요.

조: 그 때 추셨던 탈춤 가락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 그럼요, 아직 기억해요. 대학교 2학년 학교 축제 때 남아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강령(康翎)탈춤' 공연을 했는데, 전 그 땐 '소무(小巫)'로 출연했었죠. 탈춤반은 중앙 동아리였는데, 미학과와 김지하 선생님 같은 쟁쟁한 문화계 운동권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어요. 소위 '민중문화'라고 해서 우리 민중의 전통적 문화 체험을 매개로 '못 가진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탈춤반이었고, 대부분의 선배들이 학생운동을 했던, 상당히 '의식화'된 집단이었죠. 탈춤을 추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으니까요. 전 그걸 모르고 들어가긴 했지만 말이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의 사회의식이 생겼고, 3, 4학년 쯤에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대해 눈뜬 것 같아요.

김: 처음엔 춤이 좋아서 동아리에 들어가신거... 맞죠?

강: 그렇죠. 춤이 마냥 좋아서...(일동 웃음)

이지연(이하 이): 재학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대에 여학생 수는 몇 명이었는지, 여학생들끼리 여학생회 등의 여학생 모임이나 지원네트워크가 있었는지, 교수님들과의 여학생들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법과대학의 강의내용과 방식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강: 제가 학교를 다녔던 70년대 중반에는 법대에 운동권 여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학생 수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학생들과의 관계는 요즘같이 스스럼없이 반말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친하기는 하지만 존댓말을 하는 사이였어요. 여학생들끼리는 위낙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더 잘 모였던 것 같아요. 선, 후배끼리 자주 모임을 가졌고, 졸업 후에도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 모교에서 최초로 여성교수가 채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교수님들이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법률가의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 말씀이 나온 김에 관련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현재 강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대 여학생의 중요한 역할 모델 중 한 사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대 여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강: 글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법의 본질과 연결시켜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법 제도 자체가 한 사회의 뼈대잖아요. 뼈가 휘거나 부러지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은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법률가는 양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사회 시스템이 추구하는 법률적 가치들을 고수하면서도, 단순히 그 시스템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이 보수만 강조하다보면 많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앞에서 법률가는 균형잡힌 양면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고민해야 해요.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해 눈을 뜨기는 하지만, 의외로 직업을 가진 상류층의 여성들이 '탈 여성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약자화되어 있는 여성 일반에 대한 고려없이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중립성의 명분 아래 오히려 여성 일반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반 여성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전체 여성들에 대한 책임감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남자였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 장관이 되고,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여성이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과 연대감과 유대의식을 갖고,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죠.



조: 강 장관님이 지적하신 여성 엘리트의 '남성화' 또는 '중성화' 현상은 법대 여학생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론 대학 사회 일반의 현상이긴 하지만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도 거의 모두 고시를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 시작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장관님 학교 다닐 때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구요. 지금 생각하기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강: 당시 학교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고시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법대라는 공간에 아카데미한 분위기가 별로 없었고, 강의도 마치 학원강의 같은 느낌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시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교양을 익힐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빨리 현실적인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전체 여성들에 대한 책임감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정수준의 식견과 교양을 갖게 해주는 사회라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준비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 사실 법대 학생들이 기초교양이나 다른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고시 준비에만 빠져 있는 상황은 현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 사법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법관·검사 임용제도와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이 문제들은 법무부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할 것 중 하나이지만, 현재 정부는 지금 당장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 제 생각에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학교육제도, 법관·검사 임용제도를 바꾸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시험제도를 수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무부가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 시대에 영어에 능통한 법률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법대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대학 입학시의 수준에서 급속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올리면

학생들은 영어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인 사법시험 자체를 바꾸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 공부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 중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강: 네,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문진구(이하 문): 전공과목 중에 유달리 흥미를 끄는 과목이 있으셨는지요? 있다면 왜 그랬었는지도 말해주세요.

강: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종교학과, 미학과 쪽을 가 볼까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강의를 들어봐도 역시 어떤 결핍감 같은게 느껴져서 전과를 하지는 못했어요. 법학 과목 중에는 법철학하고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형사소송법은 강구진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정말로 강의를 잘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문: 법학 공부 외에 대학 생활에서 관심을 가졌던 학문 분야라던가, 서적이라던가 하는 것이 있으셨을 텐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배들이 전공공부 외에도 대학 기간 내에 꼭 했으면 하는 공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강: 너무 많은데... 아까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어는 꼭 해야 하고요. 역시 인문, 사회과학 기초서적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법률가로 활동하더라도 사건의 기본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세요?

강: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작가의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이런 점에서 『역사 앞에서』라는 책이 얼핏 생각나네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김성철씨가 자신의 심리체험을 글로 옮긴 것인데, 작가 스스로는 우익이면서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좌, 우익을 논했던 것이 참 좋더군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분야의 권위자이신 박명림 교수의 책도 추천하고 싶어요. 올 6월에 우리 공안부 검사들도 박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들을 예정이거든요.

조: 박명림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논의를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초해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지요.

강: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가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박: 근래 법과대학에 와보셨나요? 장관님이 학교에 입학한 때가 관악캠퍼스로 학교가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일 텐데요, 그 당시에는 캠퍼스가 굉장히 황량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한 모습을 보니 어떠세요?



강: 지난 달에 안경환 학장님이 한번 초대하셔서 잠깐 인사하러 갔었고, 그때 법대 주변을 대충 볼 기회가 있었죠. 제가 관악캠퍼스를 다닌 첫 학번이었는데, 확실히 많이 변했더군요. 그런데 쪽 보니까 아쉽게도 학교의 기운이 학교 같지가 않고, 공사판 같았어요.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순수하면서도 운치있는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뭔가 분산된 듯한, 경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박: 판사, 변호사, 지금은 장관까지 법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을 두루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 넓게는 법을 배운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글썽 말이예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판사, 변호사, 법무부까지 다 해보게 되었네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외에 덧붙일 게 있다면 같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끼리 의외로 상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판, 검사들은 그 조직 자체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자기조직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의 검사들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다들 애국심도 대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비난을 받는지 답답해 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대부분의 검사들은 남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변해서 검사들도 사회적 평가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고 계시죠.

이: 여성 관련 이슈들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등 - 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강: 호주제 문제는 여성부 주관 기획단과 함께 폐지법안 만드는 일을 진행 중이고요, 호주제 문제 뿐만 아니라 가

족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법무부 내에도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이 있는데, 면회 오는 여성들을 위해 서울 구치소에 유아 놀이방을 만드는 등 구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법무부가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법무부 업무와 관련된 여성 차별 문제가 있겠죠. 조 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책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이나 소송절차에 있어서 여성 차별적인 법규와 관행이 많이 있어요.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담당할 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 교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 법규와 관행 양쪽 모두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김: 마지막으로, 강 장관님 임기 중에 꼭 성취하고 싶은 3가지 일에 대해서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강: 꼭 성취하고 싶은 첫째는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정당성과 실정법 사이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면 실정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은 우리 검찰에게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공안부 같은 경우는 법이 아직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둘째로는 역시 검찰이 준(準)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권력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법령정비 작업을 비롯해 법무부가 맡은 여러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조: 저는 강 장관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여성 검사의 수가 늘어나도록 만드셨으면 합니다. 외국의 검찰과 법무부의 경우 그 구성원의 상당수가 여성입니다. '폭탄주'로 대변되는 남성적 검찰문화를 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 검사의 수적 증가가 필

5년 정도 후에는 검찰 조직의 20~30% 정도를 여성

검사님들이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경

직된 검찰문화가 많이 유연해질 수 있겠죠.

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검찰을 지배하는 남성적 '명령' 문화가 여성적 '대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실제로 여성 검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검사들도 남자 검사들 못지 않게 아주 열정적이세요. 자기 소개서에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마 5년 정도 후에는 검찰 조직의 20~30% 정도를 여성 검사님들이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수님 말대로 다소 경직된 검찰문화가 많이 유연해질 수 있겠죠.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는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장관의 학부시절 이야기부터 사법시험개혁 문제, 여성문제 등 법무부가 맡고 있는 현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엄격하고 냉철한 법무장관의 모습 뿐만 아니라 부담없고 친근한 선배의 모습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질문자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강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취임 후 지난 3개월 동안, 강금실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조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강 장관 스스로 말했듯이 남은 임기동안 '안정 속에서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관 본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겠지만, 인터뷰 내내 보여주었던 침착함과 자신감만 유지한다면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

정려 김영진 기자/박준엽 기자



故 유기천 교수 추모식 및 출판 기념회

유기천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고 소신이 뚜렷하여 학장, 총장 재임 시절 많은 일화를 남긴 바 있으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정부의 압력을 받던 중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학문적으로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유기천 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에 힘썼다.

법 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월송(月松) 유기천(劉基天) 교수 기념 강좌 및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가 4월 11일 본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유기천 교수는 4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로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61년부터 65년까지 법대 학장을, 65년부터 66년까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날 행사는 98년 6월 27일 별세한 유 교수의 5주기를 두 달여 앞두고 유기천 교수의 유고를 모은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와 추모 문집 "영원한 스승 유기천"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유기천 교수는 원칙을 중시하고 소신이 뚜렷하여 학장, 총장 재임 시절 많은 일화를 남긴 바 있으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정부의 압력을 받던 중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학문적으로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유기천 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에 힘썼다.

추모 문집은 유기천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쓰여져, 유 교수의 인간적인 풍모와 함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증언해주고 있다. 한편, 유 교수가 spiritual union이라고 언급하였던 부인 Helen Silving 여사의 글이 번역되어 실리기도 했다.

기념 행사에는 유 교수의 동생인 유기옥 여사, 안경환 학장, 이대순 법대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추모 문집 발간에 참가했던 황적인, 김철수, 이태로 본교 명예 교수, 김찬진, 김춘봉 변호사, 김문환 국민대 총장, 음선평 순천향대 교수, 권병일 (주)지학사 사장 등 유기천 교수를 추모하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1부 월송 유기천 교수의 추모 문집 출판 기념회와 2부 월송 유기천 교수 추모 강좌로 나뉘어 열렸다.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회 노용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본교 최종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황적인 명예 교수의 경과 보고에 이어 안경환 본교 학장은



서울법대 장애의 벽 걸어낸다. - 손위용, 김용광 군의 입학

“겨우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제 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손위용(孫偉勇 · 50 · 울산 남구 신정2동), 김용광(金龍光 · 41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씨는 나이와 장애의 벽을 딛고 2003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법대에 합격하였다.

손위용씨는 부산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0년 빗물에 젖은 기차 난간에서 미끄러져 두 다리를 잃은 1급 지체장애인이고 김씨는 생활고로 동국대 법대를 그만둔 뒤 84년 초망막색소변성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 돌보기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다. 주변의 싸

리를 잃으면서 그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울산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이용, 학교를 다녔던 손씨는 움직이는 기차의 난간을 잡고 올라 타려다 빗물에 미끄러져 기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난간의 손잡이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다.

1년간 휴학 끝에 자퇴서를 낸 손씨는 71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생계를 위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손씨의 성실한 과외수업은 금방 소문이 나 한때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유명한 과외 강사가 됐다. 그러나 과로한 탓에 건강이 나빠져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병원비로 다 써버리게 되었다.

75년 결혼한 아내와 세 딸의 지극한 간호로 건강을 회복한 손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작은 금은방을 열었지만 93년 부도가 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등 다시 한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손씨는 장애인용 오토바이에 넣을 연료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과외를 시작, 돈을 모았다. 세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내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손씨는 딸들로부터 “더 늦기 전에 대학입학의 꿈을 이루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다.

결국 그는 2001년부터 수능준비에 들어갔고, 과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실력으로 지난해 수능에서 331점을 받아 중증장애인으로 처음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

“기억력이 나빠져 사법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늘한 시선과 싸워야 하는 장애인에게 배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나이와 몸짓이었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시련은 있었지만 법학도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손위용씨는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법대 진학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부산고 2학년인 1970년 7월 열차사고로 두 다

학진학에 대비,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기 위해 최근 낡은 의족을 바꿨다는 손씨는 “기억력이 나빠져 사법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한편 두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해 온 김용광씨는 서울 성남고를 졸업하던 1981년 동국대 법학과에 합격했으나, 학비는 물론 생활비 마련조차 힘들어 대학생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뒤 김씨는 공장생활과 술집 웨이터 보조 등으로 힘겹게 살아오다 1984년 초 방막색소변성과 백내장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해 겨울 수술을 받아 일부 시력을 찾긴 했지만 시각장애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직업교육 등을 위해 1985년 청주 맹학교에 입학했다. 청주 맹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뒤 출장안마, 신문배달, 다단계판매회사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다가 법관의 꿈을 접을 수 없어 4년 전부터 신촌 고시원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며 하루 7~8시간을 책과 씨름했다. 그 뒤 김용광씨는 법대에 재도전, 2002학년도에 연세대 법학과에 합격했으나, 또 다시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이란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비로소 등록금이 적고 장애인 장학금 혜택이 많은 서울대 법대에 응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자신의 꿈을 이뤘다. 김씨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장애인들과 소외받고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특수 판독기를 살펴보고 있는 법대 학장단과 김용광씨

1995년 시작된 장애인 특별전형이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손위용, 김용광씨의 법대 생활은 험난하기만 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손씨가 겪은 첫 번째 어려움은 난간을 활용해 계단을 오를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넓고 경사가 심한 캠퍼스는 손씨의 수동휠체어에 적당하지 않다. 지난 해 연세대 법대에 합격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다시 서울대를 지원하여 합격한 김용광씨는 “국립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용 노트북과 확대경이 부착된 독서대(CCPD)가 갖춰진 사립대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법대 측은 올 여름방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 공사에 착수하고 맹인용 도서관시설 마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손씨와 김씨는 “서울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학 중인 47명 장애학우와 8명의 장애인입생의 문제”라며 “법대 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도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씨의 부산고 선배이기도 한 안경환 법대 학장은 모금활동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선물하기로 하고 고교 2년 때 밀양에서 부산으로 함께 통학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신입생을 격려했다. 안학장은 “의사가 꿈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좌절했던 친구를 위해 한때 소송도 불사할 생

“서울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재학 중인 47명 장애학우와 8명의 장애인입생의 문제 : 모든 서울대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소중한 체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어...”

각이었다”며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법학도로서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제 겨우 방향을 전환했을 뿐 갈 길이 멀다”며 “평생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김의택 기자

장애인 중 한달에 5번밖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70.5%!
장애인 50%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장애인 1.6%만이 대학 진학!
장애인 70%가 실업자!
장애인 현실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통계들이다.

2002년 9월 서울대학교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하며 단식농성을 했을 때 나는 단과대학(법대)의 동아리 차원에서 지지방문을 다녀오고 학내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내 장애인 관련 단위 5개가 모였고, 학내 장애학우 교육권 문제와 전반적인 장애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서울법대 장애인 연대는 장애인 권다큐상영회, 대본부 질의서 제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터만들기, 학내 장애학우 실태조사,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1인시위, 서명운동, 메이데이 장애차별철폐 포럼, 총장과의 대화 그리고 서울시청 점거농성 지지방

장애인인권 연대사업에 참여하면서

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일까 하고, 하지만 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권리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판결내리고자 하는” 태도는 그 문제를 자기문제로 느낄 수 없게 함과 동시에 마음깊이 이해할 수 없고 일정부분 그 권리들을 현실적인 논리로 재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점진적인 해결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권리, 삶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것들이 결코 재단될 수 없는 것들임에도.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단지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정의로운 인간’, ‘합리적인 인간’, ‘똑똑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저울질하고 도구화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는다.

개인의 경쟁력이 최상의 가치인 이 시대, 효율성과 경제 논리가 인간의 삶과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이 시대, 점점 더 몸을 상품화하고 몸의 정상성 신화를 공고히 해가는 이 시대에 장애인들을 억압하는 현실의 조건들은 나를 옥죄는 조건들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활동은 그러한 조건들을 바꿔가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

차성연(법대 석사과정)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단지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정의로운 인간’, ‘합리적인 인간’, ‘똑똑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를 저울질하고 도구화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는다.

문·집회 등의 장애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현실이 나아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고민했다.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권의 문제가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현실과 장애인권의 중간점을 찾으려고 애쓴다.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할 예비법관들인 법대생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교수-학생 간담회

교수-학생 간담회의 의의

지난 2002년 10월 4일에 법과대학은 의미있는 시도를 하였다. 법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 성차별 기타 성관련 발언의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 간담회는 한국 사회의 남성우월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 되어오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또, 이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 방법으로 행해져서 법과대학 내부의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에 그 의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간담회는 우선 학생들이 그동안 접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보고하고, 이어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보고에 따르면 의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일상적 발언과 농담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거한 사례들이 여럿 지적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법조계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생성된 고정관념이 많다는 점과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 일상적인 발언과 농담에 사용할 경우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 것이다.

논의의 쟁점과 의견수렴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이 있는 발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발언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성관련 발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일차적으로 사고하며, 관행적 발언이라도 일단 자기검열장치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성관련 발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일차적으로 사고하며, 관행적 발언이라도 일단 자기검열장치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법과대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성희롱, 성차별 발언의 의도와 맥락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서로의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 앞으로 성관련 발언 뿐 아니라 언동에 있어 문제를 느낀다면, 직접 이야기 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학생회를 통하는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공식적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열다.

양성평등 수업환경 만들기 법대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강의실에서 한번쯤 겪어 보았을 불편한 이야기들....

여학생이 많아져서 한자 실력이 떨어지고,
법대 수준이 떨어지고, 사시 합격률이 저조하고,
나라가 엉망이고....

온통 남자들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들...

너무 화나죠?

법대 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

교수님께 들었던 불편한 이야기들...

모두 모아 보자구요,

사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은 [강의실]->

[기타법학관련]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법대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법대를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22대 법대 학생회 대자보 중에서 발췌—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안에 대하여 대화로써 해결의 길을
연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 보인다.

22대 법대 학생회의 양성평등 수업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제제기는 그것이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22대 학생회의 위와 같은 자보를 보고 관심을 가진 법대 정공식 학생 부학장의 제안으로 학생과 교수간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학생들은 수업내외에서 느낀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것들이, 여학생들에게 불쾌감

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지를 꺾어 놓게 되어 양성 이 평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학문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이 교수님들과 이야기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며, 이러한 간담회를 앞으로 정례화하여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양성평등 수업만들기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새터에서 학생회에서 준비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법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건의도 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정의하는 용어가 객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연히 다른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묶어버리면서 비약과 혼동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을 판별함에 있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지나치게 주관적 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다. 적어도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 유익하며,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데 공감하셨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공식적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동의가 이루어졌다.

법과대학의 교수-학생간의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번째 걸음으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합리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법대 교수들의 겸허한 자세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만들어 낸 것으로,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안에 대하여 대화로써 해결의 길을 연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 보인다.

이번 간담회의 경험은 법과대학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

김의택 기자

「자랑스런 서울法大人」시상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프라자 호텔 덕수홀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제 11회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자랑스러운 서울法大人으로 선정된 법대 동문은 洪震(법관양성소 3회/作故) 독립운동가, 陳懿鍾(城大 16회/作故) 前국무총리, 盧信永(법대 8회) 前국무총리, 裴命仁(법대 10회) 前법무부 장관, 李洪九(법대 11회) 前국무총리, 李漢東(법대 12회) 前국무총리, 李壽成(법대 14회) 前국무총리 등 모두 7명의 동문이다.

이중 특히 작고하신 홍진 선생을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현창(顯彰)하게 된 내력을 살펴보면 법조인으로 활

동하다 일제에 우리의 주권을 침탈당하자 바로 관직을 떠나 독립운동가로서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는 “행동하는 지성이란 과연 어떤 경우를 뜻하는지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과 함께 올해로 고희(古稀, 법대 11회) 및 회갑(回甲, 법대 20회) 회기를 맞이한 동문에게 추수패 증정 및 헌수연(獻壽筵)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지난 2월 26일 모교를 졸업한 신입회원(법대 57회)을 환영하는 자리도 함께 열리는 등 이날의 행사는 선·후배동문 모두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친선교례의 장이 되었다. □

김영진 기자

자랑스런 서울法大人 選定記

洪震 (法官養成所 3回)

晩語 洪震 선생께서는 19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시고 한성평리원 및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검사를 지내시다. 1910년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자 단호히 관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는 등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 법무·내무·외무총장 등 요직을 역임하시고 국무령(대통령)까지 지내신 선생은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당군(黨軍)으로 한국독립군을

창설, 만주에서 독립무장투쟁에 앞장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중경 임시정부 당시 좌우합작의 연립내각을 구성, 좌우익의 이념을 초월하여 독립운동의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민족지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광복후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 건국사업에도 전력하셨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바치신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은 우리 서울법대인의 훌륭한 귀감이기에 ‘자랑스런 서울法大人’으로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바입니다. □

2003년 5월 27일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同窓會

會長 李大淳

위하여 봉사해야 할 엘리트라고 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불신이 마침내는 엘리트 무용론 내지 엘리트 죽이기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엘리트를 죽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 평등한 세상에서 엘리트는 필요없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장 자리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엘리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럴수록 훌륭한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 불경에 이런 우화가 있다: 뱀 한 마리가 있었다. 여느 뱀들과 마찬가지로 이 뱀도 움직일 때 항상 머리가 앞서 가고 꼬리는 그 뒤를 따랐다. 꼬리는 늘 그것이 불만이었다.

참다못한 꼬리가 머리에게 대들었다. 말싸움에 진 머리가 양보하여 그 때부터는 꼬리가 앞서 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뱀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죽고 말았다. □

-서울대 대학신문 2003. 5. 3자 기고

아일랜드 대기근과 기억의 역사

한인섭 교수

하버드 대학이 있는 캠브리지시의 중심가에 있는 넓직한 공원, 캠브리지 코먼에 가면 매우 사실적인 동상이 있다. 굶주림과 절망에 가득찬 엄마가 탈진한 아이를 안은 채 손을 벌리고 있고, 그 앞에 어깨에 굶주린 소녀를 안은 채 그 모자를 향해 손을 뻗치는 남자를 새겨놓은 모습이다. 앙상한 체구와 다 헤어진 낱마를 간신히 걸치고 있는 동상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굶주림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 장면은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따온 것이다. 1845년부터 1850년까지 5년간이나 지속된 기근의 참상은 An Corta Mor, 혹은 The Great Hunger라 불리는 대재앙을 기록했다. 20세기의 비아프라, 소말리아의 참상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기근으로 850여만의 아일랜드인 전체가 엄청난 고통과 상실을 겪어야 했고, 그 중에서 백만명 이상의 아일랜드인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 견디다 못해 해외이민의 길로 내몰린 인구가 2백만 이상이었다. 그 중 많은 인구가 여기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북미지역으로 피난처를 찾았다. 케네디 대통령의 선조가 미국 이민길에 올랐던 것도 이 때였다. 나라 전체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음과 유랑의 길에 내몰렸다. 아일랜드의 전통과 문화의 파괴적 해체가 아울러 진행되었다.

아일랜드 소설가 William Carleton은 이렇게 썼다. "사람들의 얼굴은 앙상하고, 눈빛은 황량하고 켕하니 열려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냘프게 비틀거리네". 들판을 다녀보면 한줌의 무리들이 어깨에 판을 메고 지나가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도로의 연변에도 많



저자인터뷰: 최종고 교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종교(「법과 종교와 인간」/삼영사), 법과 문학(「法속에서 詩속에서」/교육과학사), 법과 미술(「도미에의 사범풍자화」/열화당, 「법과 미술」/시공사) 등 법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연구하고 소개해 온 최종고 교수가 이번에는 '법상징학'이라는 또 하나의 생경한 분야를 책으로 펴냈다.

최종고 교수의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의 출판에 맞추어 저자를 만나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묻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 문: 우선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 답: 본 저서는 본격적인 법상징학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법미학적 관점에 가까운 접근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의 차원에서 수집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법이념의 상징물로서 유스티치아와 해태상에 주목하였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법사상은 서양의 논리 중심, 개념 중심의 법철학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정서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본 연구가 이제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동양적 법상징에 대한 시론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 문: 책의 전반부에서 상징의 의미와 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상징이라는 것이 이상향을 실체화, 조형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징을 강조함으로써 상징이 지향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도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실에 있어서의 모순을 은닉하게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상징은 개념을 초월한다. 동양이 풍부한 상징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문화는 지나치게 문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검찰에서 검찰의 시끄러운 상황들이 검찰의 상징물인 일각수의 뿔이 검찰청사 쪽을 향하고 있는 탓이라는 의견을 좇아 뿔의 위치를 옮긴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상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상징의 힘이 현실에서 발휘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 책에서도 주목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해태가 대표적인 정의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현재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상으로는 해태에 관한 설화나 정의의 상징물로서의 기록이 적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답: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화되어 보존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해치관, 해치복 등 몇몇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 문: 법상징이 정의감의 표출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의의 상징이 서양에 비해 적고, 다양화되지 못한 것은 아직 정의감이라든지 법문화 같은 것이 서양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탐은 아닌가. 또한 정의의 여신상과 같은 서구적인 상징물 외에 우리의 고유한 정의감의 표현으로서의 한국적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 답: 우리에게 고유한 법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또한 우리의 법상징물로서 해태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현대적 해태와 같이 고유한 상징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조형화의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학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면, 예술가들이 이를 받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양의 유스티치아상을 한국의 선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등 서구의 상징물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 문: 본 저서에서는 법상징물이 표현하는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에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의만이 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은 아닐 것이고, 질서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법의 다른 이념에 대해서는 법상징학적 연구계획은 없는지.

■ 답: 역시 아직은 법상징학을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동양의 법상징은 서구적인 법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동양에서는 개념법학이라고도 불리는 서구의 법상징에 비해 합리성이나 논리성보다는 미학적인 부분, 즉, 개념과 체계를 뛰어넘는 부분이었고, 본 저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 문: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린다.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 답: 나 역시 새로운 관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는 동서양의 법상징물에 관한 풍부한 삽화를 곁들인 어렵지 않은 서술로 법학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법상징학을 알아 가는데 친절하고 차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

오지영 기자

문화관광부 '2002 우수학술도서' 선정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한국근대법사고」

1.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2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법률가의 사회적 비중의 증대와 더불어 더욱 중시되고 있는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범조인 양성의 현장에 있는 서울대



